

는 안구건조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눈물의 생산이 적거나 그 기능이 감소되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증상으로는 이물감, 타는 듯한 느

는 찻수가 치료에 중요하며 심한 경우에는 누액을 매 시간마다 수차례 점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침시에 누액연고를 사용하기도 한다.

매일 인공淚液 점안해야

인공누액 사용 횟수는 하루 1회 점안을 원칙으로 하지만 외부 환경에 따라 심할 때와 심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 심할 때는 횟수를 많이 늘려야 하며 부작용은 전혀 없다. 또한 치료에 사용하는 누액은 개인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재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안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누액제재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한 가지 인공누액을 써보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의사와 의논하여 차차 작용이 강하거나 성분이 다른 인공누액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용 소프트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드물게는 누공폐쇄술(淚孔閉鎖術)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밖에 주변환경을 항상 습도가 높게 유지해야 하며 특히 아파트 등 건조한 곳에서는 가습기를 쓰는 것이 좋다.

누액분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약물(코트물감기약, 고혈압약, 피임약, 항생제 등)을 사용할 경우 안과 의사와 상의하고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인공누액은 눈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부족된 눈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져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해야지 마음대로 중단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 ⑮

안구건조증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김, 눈부심, 건조감, 눈의 피로 등이 있으며 대개 오후가 되면 증상이 심해지고 바람, 연기, 에어컨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많이 나온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안구건조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대개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년 부인이나 노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그밖에도 염증, 약물복용, 외상, 만성결막염, 안검이상 및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

〈치료〉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경우에는 원인치료가 우선이겠으나 대부분 중년 이후에 오거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치료와 함께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한다. 부족한 눈물을 보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눈물(인공누액<人工淚液> 또는 연고)을 점안해야 한다. 인공누액을 사용할 경우 누액을 점안하

만은 분들이 눈의 이물감과 불편감, 눈이 마르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다. 그러나 결막염으로 생각되어 치료받은 분 중에서 의외로 눈물이 적게 나와서 고생하는 안구건조증이 많다.

눈물 부족, 노인들 많이 발병

〈증상 및 원인〉 눈물은 각막의 표층에 존재하여 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기능을 하고 세균이나 이물을 세척하고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이 부족하여 생